

제 8장 고려시대 화약과 화약무기의 제조

<고려 및 조선 초 화약관계자료 ; 2013, 10, 15>

A)《고려사》권81, 병지 숙종 9년(1104) 12월에 尹瓘이 아뢰기를 “별무반을 두고 문무 상관 서리들로부터 商賈와 노복 및 주, 부, 현에 이르기까지 말을 가진 자는 神騎軍으로 하고, 말이 없는 자는 神步, 도탕, 梗弓, 精弩, 發火軍 등으로 할 것이며 연령이 20세 이상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는 모두 神步에 배속시키고, 兩班과 諸鎭府軍人은 사철 계속 훈련시키며 또 僧徒들을 뽑아서 降魔軍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B)《고려사》권98, 열전1, 김부식전 “그것으로(제포기) 성의 문루를 분쇄하고 이어 火毬를 던져 불태우니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C)《고려사》권81, 병지 공민왕 5년(1356) 9월 九月 宰樞會崇文館 閱西北面防禦兵仗 放銃筒于南岡箭 及順天寺南 墜地沒羽

D)《고려사》권44, 공민왕 22년 11월 을축일 밀직부사 張子溫을 주영찬의 대신으로 명나라에 파견하였다. 이달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명나라 중서성에 보내 화약 공급을 요청하였다. “왜적이 무시로 내왕하면서 침범한 지가 이미 20여 년이다. ... 바다에 나가서 그들을 추격 포로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적들의 기세가 이미 치열해졌으므로 바다에 나가서 추격 체포하여 백성의 화근을 근절하려고 관원을 파견하여 왜적 체포를 위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그 배에 사용할 기계, 화약, 유향, 염초 등 물품을 입수할 곳이 없으므로 이제 귀 조정에 청하여 분양받아서 이 용도에 충당하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E)《고려사》권44, 공민왕 23년 5월 초 8일 중서성 大都督府 御史臺官이 奉天殿에서 다음과 같은 황제의 전하는 말을 받았다. “고려가 軍器와 화약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고 배를 만들어서 왜적을 잡는다 하니 내가 보건대 대단히 기쁜 일이다. ... 그래서 중국에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王顛이 진심으로 나의 명령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이 명령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라! 그는 아마 명령대로 할 것이다. 빨리 문서를 발송하여서 그곳에서 염초 50만 근을 걷어 모으면 유향 10만 근을 장만할 수 있으니 이곳에 오라고 지시하라! 그러면 필요한 다른 약품을 조합하여 그곳에 보내 주어라. 새로 만든 왜적 나포 선척은 유능한 장관을 파견하여 그 배를 몰고 와서 나에게 보이게 지시하라!”고 하였다.

F)《고려사》권133, 신우 원년 10월 처음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판사 崔茂宣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최무선이 원나라 화약 제조 기술자 李元과 한 동리에 살면서 대우를 잘해 준 다음 그에게 은근히 화약 제조 기술을 물어보고 자기집 하인 몇 명에게 이를 전습시켜 시험해 본 다음 마침내 나라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설치케 한 것이다.

G)《고려사》권77, 백관 1 화통도감 신우 3년에 판사 최무선이 건의하여 설치하였다. 신창이 이를 폐지하고 균기시에 속하게 하였다.

I)《고려사》권81, 병1 우왕 4년 4월에 서울 밖의 각 사원에 火燭放射軍을 배치하되 큰 사원에는 3명, 중 사원에는 2명, 작은 사원에는 1명으로 정하였다.

J)都堂에 말하여 시험해 보자고 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고 무선을 속이는 자라하고 험담까지 하였다. 여러 해를 두고 獻議하여 마침내 성의가 감동되어, 火藥局을 설치하고 무선을 提調로 삼아 마침내 화약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 화포는 대장군포·이장군포·삼장군포·六花石砲·화포·信砲·화통·火箭·鐵翎箭·皮翎箭·蒺藜砲·鐵彈子·穿山五龍箭·流火·走火·觸天火 등의 이름이 있었다. 기계가 이루어지매,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4월 19일 壬午)

K)홍무18년명 총통(우왕 11, 1385)

洪武十八年 乙丑七月日 楊廣內床造 元帥王□

L)평안·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走火의 이익은 크다. 말 위에서 쓰기가 편리하여 다른 火炮의 미칠 것이 아니다. 騎士가 혹은 허리 사이에 꿰고 혹은 화살통에 꿰어서 말을 달리며 쏘면 부닥치는 자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두려워서 항복한다. 밤 싸움에 쓰면 광염이 하늘에 비치어 적의 기운을 먼저 빼앗는다. 伏兵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곳에 쓰면 연기 불이 어지럽게 발하여 적의 무리가 놀라고 겁에 질려 그 진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나 화살 나가는 것이 銃筒과 같이 끈지 못하고, 약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총통이 약을 쓰는 것만 같지 못하고, 거두어 갈무릴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총통의 수시로 장약하는 편리한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총통의 이익이 더욱 크다. 근일에 내려 보낸 走火 중에 先運이 走火 6백 개이고, 二運이 中走火 8백 개, 小發火 8백 개, 小走火 1천 5백 개이고, 三運이 平安道에 直上火 2천 개, 火箭 3백 52개, 大走火 60개, 小蒺藜砲 36개, 中走火 2천 2백 70개, 小走火 3천 3백 40개, 咸吉道에 直上火 1천 개, 火箭 1백 75개, 大走火 30개 小蒺藜砲 18개, 中走火 1천 1백 30개, 小走火 1천 6백 60개이다. 지금 또 더 보내려고 하는데 몇 자루를 보내면 넉넉히 쓰겠는가. 경이 監鍊官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세종실록』 권118, 29년(1447) 11월 22일 신해).

M)의정부에서 병조의 呈文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 八箭銃筒·四箭銃筒·長銃筒·細銃筒·中
小神機箭은 兩界에는 매 년 한 번씩,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쏘기를 연습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122, 30년(1448) 12월 6일 무오).

N)의정부·兵曹堂·三軍都鎮撫·軍器監提調 등이 慕華館에 모여서 火車 쏘는 상황을 보고 提
調 李思任이 여러 신하의 합의로써 와서 계문하기를, “火箭 제도가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니
다만 화차 좌우에 防牌를 달아서 불을 붙여 놓는 사람의 몸을 감추는 곳을 만들고, 神機箭架
子 및 전혈(箭穴 ; 총구멍)을 쇠로 장식하여 화재를 막게 함이 어떠합니까?”하니, 곧 이사임
으로 하여금 아뢴 바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였다(『문종실록』 권6, 1년(1451) 2월 20일 기축)